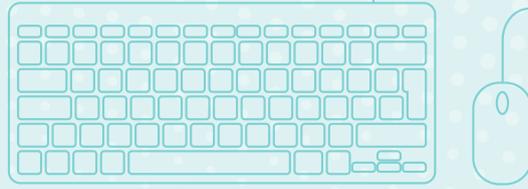


# KIHA NEWS



## 대한산업보건협회, 치악산 연수원에서 인턴 교육 '성료'

협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공개채용 인턴 합격자 72명을 대상으로 한 인턴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치악산 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은 1차수, 2차수로 나누어 4박 5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경영 및 사업지원본부와 혈액원의 역할, 인사·복무 규정 및 전산프로그램 사용 방법, 노동조합 소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협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비즈니스 매너와 셀프 리더십 교육 등 협회 인턴사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업무 소양과 자세에 대한 강의로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인턴사원들은 이미지 게임, 종이 롤러코스터 만들기 등 협동심과 단합력이 필요한 팀워크 활동에 참여하며 팀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진폐노동자에 '사랑의 나눔상자' 전달

협회는 4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나눔상자 9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협회 백헌기 회장, 정정희 노조위원장, 이상태 경영총괄이사, 이범식 경인지역본부장, 안산병원 임호영 병원장,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1일 협회 임직원들이 진폐 환자에게 전달할 나눔상자를 직접 만들며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나눔상자 기부 행사는 2019년부터 시작된 협회 고유의 사회공헌활동이다. 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나눔상자 기부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나눔상자는 하나은행과 함께 양사가 일정 금액을 출연해 마련하였으며 생필품·의료품 및 의료구급함 등 약 1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백헌기 회장은 "진폐노동자의 아픔은 계속되지만 관심은 줄고 있다"며 "산재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양 기관의 우호 증진을 위한 산업보건환경연구원-우송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20일 우송대학교 총장실에서 우송대학교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송대학교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보건환경연구원과 교류 협력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과 양 기관의 공동번영 및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협약에 포함된 교류협력 내용은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등 전반적인 교육협력 모델 구축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및 견학에 관한 사항 ▲기술의 진흥발전과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업무협약에 따른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간 동안 양 기관이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약속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서약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더불어 사는 내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백헌기 회장과 이상태 경영총괄이사는 4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윤경ESG포럼 CEO 서약식'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서명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를 비롯해 기업·정부·학계·시민사회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ESG 경영이 기업활동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ESG 경영의 실천·확산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약속했다. 서약식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사)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KCMC)·aSSIST 경영대학원이 후원했다.

## 행정안전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협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전국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산불피해 지역인 동해시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체험관 접근이 힘든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등 소외지역 아동들에게도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야영장 안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급제동에 대비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체험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30여 가지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지난달 23일 행안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